

브라질 통신산업의 최근 동향 및 전망

1. 최근 동향

□ 번호 이동성 제도 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 본격화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통신 시장이며, 케이블 TV*를 제외한 모든 통신 분야에 외국 자본 참여가 가능한 자유 경쟁 시장 체제로, 2008년 9월 1일 번호 이동성 제도(number portability)¹⁾ 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케이블 TV의 외국인 지분 상한은 49% 이하임.

- 브라질 번호이동성 회사인 ABR Telecom에 따르면 '08년 9월~12월 기간 중 약 12만 (무선 8만, 유선 4만) 건의 번호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서비스 개선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 M&A 등을 통한 기업 대형화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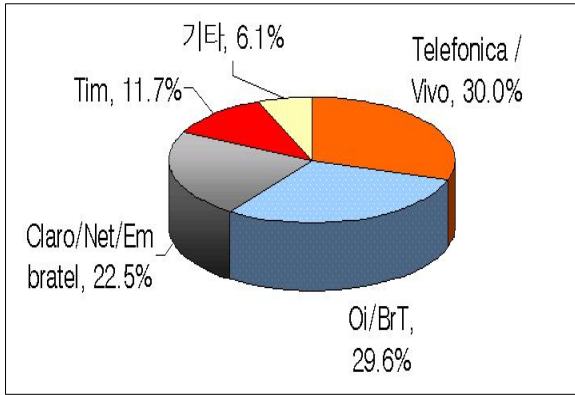
- 2001년 이후 통신기업들간의 M&A²⁾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09.1월 Oi와 BrT의 통합으로 브라질 통신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 합병 후 Oi-Brasil Telecom은 매출 기준으로 브라질 유무선 통신회사 중 VIVO/Telefonica(배분율 30.0%)에 이어 2위 기업으로 부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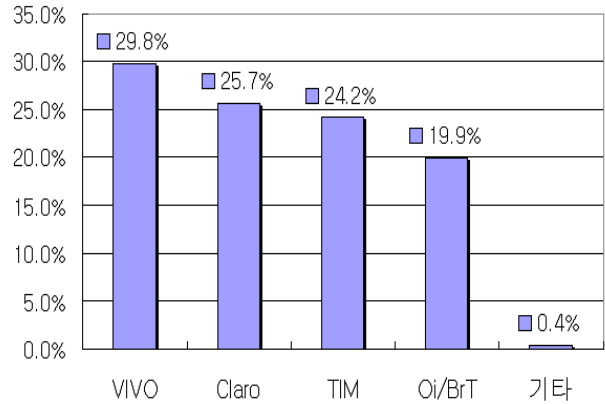
1) 번호이동성제도 :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나 지역, 서비스 종류 등을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제도로, '08.8월 상파울로(Sao Paulo)시 도입을 기점으로 '09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도입 예정

2) 최근 M&A 현황 : VIVO, Telemig/Amazonia 합병('07.8월); VIVO, Oi 앞 Amazonia 매각('07.12월); Oi, Brasil Telecom 합병('09.1월). 2001년 20여개에 달하던 이동통신사업자는 7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

브라질 통신회사 매출 점유율
(‘08.1~9월 통계 기준)



M&A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08.9월 현재)



※ 자료 : 브라질 통신전문 포털 TELECO (www.teleco.com.br)

- 또한 Oi/BrT는 유선 전화 가입자 보유 순위에서는 54.7%를 기록, 1위로 올라섰으며, 스페인 Telefonica의 Telesp社는 29.3%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Oi/BrT는 이동통신(무선)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VIVO, Claro 등에 이어 시장점유율 4위를 기록중임.
- 지역별 사업권 부여 및 Oi와 BrT의 합병 등을 계기로 유선 통신서비스 제공 범위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유선 전화 지역별 서비스 제공업체

지역3)	서비스 권역	서비스 제공업체
지역 1	로컬, 지역내	Oi
지역 2	로컬, 지역내	Brasil Telecom
지역 3	로컬, 지역내	Telefonica
전 국	지역간/국제	Embratel

‘04~’08 유선 전화 시장 점유율(%)

연도	Oi	BrT	Telesp	기타
2004	38.4	24.0	31.5	6.1
2005	38.3	24.6	31.8	5.3
2006	37.2	21.8	31.3	9.7
2007	36.2	20.5	30.4	12.9
2008 (9월)	34.4	20.3	29.3	16.0

※ 자료 :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8)

3) 지역 1 : Rio de Janeiro, Minas Gerais, Espirito Santo, Bahia, Serpige, Alagoas, Pernambucoi, Paraíba, Rio Grande do Norte, Ceará, Piauí, Maranhão, Para, Amapa, Amazonas, Roraima

지역 2 : Santa Catarina, Paraná, Mato Grosso do Sul, Mato Grosso, Tocantins, Goiás, Distrito Federal, Rondônia, Acre, Rio Grade do Sul

지역 3 : São Paulo

□ 유무선 역전 현상 뚜렷

○ 브라질의 유선전화 보급률은 '08년 기준 19%로 매년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무선전화 보급률은 다양한 휴대폰 보급,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등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며, 2001년부터 시작된 유무선 역전 현상을 보다 확고히 하고 있음.

- '08년 9월 기준 무선전화 보급률은 76.3%이며, '03~'07 5년간 연평균 28.56%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유선전화 보급률은 같은 기간 연평균 -0.9%를 기록

브라질 유무선전화 가입자 추이

	유선전화			무선전화		
	가입자 수 (백만명)	증감률 (%)	보급률 (%)	가입자 수 (백만명)	증감률 (%)	보급률 (%)
2003년	39.19	1.0	21.9	46.37	32.9	26.2
2004년	37.98	-3.1	20.9	65.61	41.5	36.6
2005년	37.79	-0.5	21.6	86.21	31.4	46.8
2006년	38.80	2.7	20.8	99.92	15.9	53.5
2007년	37.00	-4.6	19.5	120.98	21.1	63.9
2008년	36.40	-1.6	19.0	146.53	21.1	76.3

※ 자료 :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8) 및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무선통신은 GSM(SIM카드) 방식이 대세

○ 현재 대부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GSM 기술을 채택하였으며,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VIVO 역시 2006년 6월에 동 기술의 활용을 결정하였음. 2008년 2월, GSM 방식 휴대전화는 1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8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중임.

- TDMA, CDMA 등 방식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2006년 40%대에서 2008년말 12%대로 크게 축소중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발매된 WCDMA 역시 가입자가 145만명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통신 기술별 가입자 및 시장 점유율 (‘08.9월 기준)

단위 : 백만명, %

연 도	AMPS		TDMA		CDMA		GSM		WCDMA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2002	0.80	2.29	20.92	59.97	11.47	32.89	1.69	4.85	-	-
2003	0.62	1.33	24.90	53.69	14.00	30.20	6.85	14.78	-	-
2004	0.37	0.56	23.31	35.53	19.51	29.74	22.42	34.18	-	-
2005	0.15	0.17	17.41	20.20	24.02	27.87	44.63	51.77	-	-
2006	0.06	0.06	10.31	10.32	26.00	26.03	63.54	63.60	-	-
2007	0.02	0.01	5.16	4.26	20.88	17.26	94.93	78.47	-	-
2008 (9월)	0.01	0.01	2.36	1.67	15.02	10.67	121.95	86.62	1.45	1.03

※ 자료 : Paul Budde Communication

□ 3세대 이동통신(G3)의 출현

- 2007년 7월, ANATEL은 브라질의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라이선스 부여를 위한 입찰공고서를 발표(1,900 Mhz와 2,100 Mhz)하였음.
- 3세대 이동통신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주요 사업자는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외에도 브라질 전역에 2세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어 향후 2년내에 브라질 전국민이 거의 대부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G3 시장 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은 편으로, 중남미 최대 통신기업인 TELMEX(멕시코) 까를로스 슬림 사장은 ‘09년 브라질 통신시장에 9~9.5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음.

G3 사업자 입찰 결과

사업자명	낙찰된 라이선스 내용
VIVO	- 브라질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3세대 라이선스
CLARO	- 브라질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3세대 라이선스
TIM	- Minas Gérais 지역의 1개 소구역을 제외하고 브라질 대부분 지역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
Oi/BrT	- São Paulo와 Mato Grosso do Sul, Goiás주 내 CTBC 서비스권 도시외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
CTBC	- São Paulo와 Mato Grosso do Sul, Goiás내 일부 도시

※ 자료 : www.ubifrance.fr 프랑스무역진흥공사

□ 휴대폰 판매 시장 단기적 침체 전망

- 2008년말 기준 브라질 내수 시장의 휴대폰 판매량은 29.6백만대로 전년 대비 24.5% 증가하였으나, 평균적으로 연간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12월 한 달 신규 판매량은 3.6백만대에 불과해 전년대비 23%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 여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브라질 LG 전자는 '09.1월 상파울로 핸드폰 및 모니터 생산 공장 인력의 18.5%인 500여명을 감원 조치한 것으로 보도됨.
- 그러나,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휴대폰 시장의 침체가 단기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며, 2012년까지 이동통신 가입자가 현재 142.8백만명에서 194.8백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통신 기업 현황

가. 이동통신기업

- 브라질 이동통신 부문은 외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임. 브라질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VIVO는 스페인의 Telefonica와 포르투갈의 Telecom이 공동투자한 합작법인이고, 2위 Claro 그룹은 멕시코 America Movil 계열, 3위인 TIM은 Telecom 이탈리아의 현지법인임.

브라질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2004-2008)

단위 : %

연도	Vivo	TIM	Claro	Oi/BrT	Telemig/ Amazonia	기타 ⁴⁾
2004	40.1	20.5	20.6	11.4	6.1	1.3
2005	34.3	23.2	21.5	14.4	5.2	1.4
2006	28.9	25.3	23.7	16.4	4.6	1.1
2007	27.4	25.6	24.7	16.6	4.3	1.4
2008	29.8	24.2	25.7	19.5	-	0.8

※ 출처 :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8), '08년 통계는 TELECO

4) 기타 : CTBC Telecom, Sercomtel, Unicel

<VIVO>

- 브라질내 시장점유율 1위의 이동통신 브랜드로 스페인의 Telefonica와 포르투갈 Telecom의 공동합작법인(50:50)이며, '08년말 기준 시장점유율은 29.8%, 가입자수는 45백만명에 달함.
- 2006년까지 CDMA 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6년 2월 GSM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와 마케팅 전략으로 가입자수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음.

<Claro>

- 멕시코 최대 이동통신 그룹인 America Movil가 소유한 회사로 지주회사인 Telecom Amercias와 자회사인 Claro Participacoes과 Americel로 구성되어 있음.
- 2008년 처음으로 TIM Brasil을 제치고 시장점유율이 2위(25.7%, 가입자 35백만명)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 10월 Amapa와 Roraima에 대한 통신망 개통으로 전국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음.

<TIM Brasil>

- 세계 유수의 통신업체인 Telecom Italia의 이동통신 자회사 TIM(Telecom Italia Mobile)의 브라질 현지법인으로 2008년말 기준 시장점유율 24.2%로 업계 3위를 기록중임.

나. 유선통신기업

<Oi Movil/Brasil Telecom>

- '09.1월 Oi Movil/Brasil Telecom의 합병으로 인해 1위와 3위 기업이 통합하여 과점 기업으로 부상하였음. '08. 9월 기준 22백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Oi는 지역 I, BrT은 지역 II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범지역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M&A를 위해 Oi는 BrT의 모기업인 Brasil Telecom Participacoes 앞 약 35.1억달러를 지급, BrT 지분 60.5%를 매입하였음.

<Telesp>

- 스페인 Telefonía의 중남미 지사인 Telefonía Latinoamerica가 대주주인 기업으로 지역 3인 상파울로(São Paulo)의 유선 통신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음.
- 2002년부터 장거리 유선 전화 사업권을 낙찰 받아 지역 I과 지역II로 장거리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08.9월 기준 총 11백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시장 점유율 29.3%를 확보한 상태임.

<Embratel>

- 브라질 유일의 국제 통화 및 지역간 장거리 통화 사업권자로 멕시코 Telmex사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유성망을 구축하고 인공위성 방송, 인터넷, 기업 네트워크 등 다각적인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3. 향후 전망

□ 이동통신 중심의 성장세 지속될 듯

- 세계 경제 침체 및 헤알화 평가 절하로 인해 국내 수요가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브라질의 시장 잠재력이 높고 외국자본 투자가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브라질 통신국 Anatel은 2009년 말 무선전화 시장의 보급률이 90%이상일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중하위 소득 도시에도 이동통신 서비스가 보급되도록 투자를 지속할 예정임.

□ 신규 투자도 확대될 전망, 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지연가능성은 상존

- 최근 멕시코 Telmex사와 스페인 Telefonica사 등 양대 외국 기업들을 주축으로 G3 등 신규 사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음.
 - 멕시코 Telmex는 G3 개발 등에 '09년 9~9.5억달러, 스페인 Telefonica는 이동통신 번들(bundle) 프로그램 개발 등 인프라 확충에 '09년 8.4억달러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음.
-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상존하나, 통신부문 투자 확대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브라질 통신시장의 매력도 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문의 : 전문연구원 박현희(☎3779-6676)

sarapark@koreaexim.go.kr